음주운전 기준 강화…지방선거 변수로

민주 광주시당, 60명 자격 심사
서대석 서구청장 등 12명 부적격
"일관성 없다" 재심 청구키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6·1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광주 서구청장 선거 유력 후보로 꼽혔던 서대석 서구청장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광주 서구청장 선거판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열고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의 자격을 심사, 이 중 12명을 부적격 판정했다.

앞서 검증위에서는 13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전과 등이 있는 60명은 공관위로 넘겨져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거나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부적격 판정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하면서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이 부적격자에 포함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출마의 뜻을 밝힌 서 구청장은 1996~2000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 구청장은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 구청장의 재심 결과가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4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도 부적격 처리됐다.

공관위는 1~2회 음주 운전자들은 일단 적격 판정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천 쇄신을 들어 음주운전 전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의 공천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하기로 했으나,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간을 제한하면서 서 구청장은 부적격 기준을 면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기준이 오락가락해 공천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 음주운전 전력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 등 부적격 판정자들은 공천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 찾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태진 비대위원, 김종민 의원, 박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탄희 의원, 권지웅 비대위원. /연합뉴스

현직 시의원들, 시장 후보 캠프 요직 맡아 활동 논란

"시정 견제·감시 잊었나" 빈축

현직 광주시의원들이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회의 회기가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여성 시의원은 시장 예비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까지 맡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광란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이용섭 예비후보(전 광주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익주 의원도 이용섭 예비후보 선대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의원 모두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시의원이 전직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수행하는 역할은 맡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선거 운동을 이유로 이들 의원의 의정 활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광란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지각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광주 시민의 대표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분인 광주시의원이 전직 시장의 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지만, 더욱이 비서실장을 맡아 활동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며칠 전까지 견제와 감시를 했던 전 시장을 돕겠다면 뒤에서 조용히 돕든지, 의원직을 사퇴하고 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시당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의원 간에 적절한 긴장과 거리는 필수적"이라며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로 광주가 회색빛 도시가 되는 상황에서 비판도 대안도 없는 광주시의회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용섭 청년캠프 '메타버스 캠프' 출범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청년캠프가 광주시 선거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선거캠프인 '메타버스 캠프'를 선보이며, 6일 공식 출범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용섭 메타버스 선거캠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 예비후보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며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완성해 명실상부한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청년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연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포함됐다.

청년캠프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 예비후보와 소통하면서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해 나갈 청년정책 및 인공지능 기반의 시민 서비스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MZ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여성 1만명, 보육교직원 등 지지선언 잇따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활기찬 광주를 꿈꾸는 여성 1만명' 은 6일 광주 서구 강기정 예비후보 경선 선대본부에서 강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강기정은 진짜 광주 사람이자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 혁신의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차별 없는 일자리의 도시, 따뜻한 돌봄공동체 도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기정이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보육교직원 1004명도 강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광주시장 출마 선언

하헌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 6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하 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10여년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큰 스승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로지 일자리 만드는 시장으로서 광주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광주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광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광주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국민의힘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정현, 전남 4대 지역 발전 전략 공약 발표

6·1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며 "정책 대결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지역 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전남 1인당 평균 국민소득 4만 달러로 상향 ▲전남 동서갈등 없도록 서부권, 동부권 발전 아이템 제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7대 복합단지 조성 ▲순천-구례 통합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고, 그러나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로나 시약 수의계약 특혜' 보도 싸고 李-姜 측 설전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의 24억원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용섭 예비후보가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에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영세업체와 2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 시약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선대본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 예비후보가 이에 대한 감사를 약속하고도 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예비후보 선대본은 "해당 수의계약은 '코로나19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행정안전부 재정 집행 공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책임하에 진행한 것이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도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대다수 지자체가 긴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진단 시약을 확보했다"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유착은 일절 없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